

가블러의 『율리시즈』개정판(1986)과 엘만의 「서문」

진 선 주

“임이시여, 그대의 말씀은 진정인가요?” (*Ulysses* 13. 645-46)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가블러 팀이 제작한 『율리시즈』 “개정판” (*Ulysses: The Corrected Text*) (1986)에는 리처드 엘만(1918-1987) 교수의 「서문」 (“PREFACE”) 이 실려 있다. 텍스트의 벽두를 장식하는 “개정판”의 얼굴이라 할 이 「서문」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그 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엘만의 「서문」이 언제까지 “개정판”에 계속 그대로 실릴 것인지 그 귀추를 지켜보자는 데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엘만 교수의 「서문」이 나오게 된 경위를 훑어보고, 그 내용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파리의 셰익스피어 출판사에서 출판된 『율리시즈』 초판(1922)은 널리 알려진 대로 오식 투성이었다. 비치(*Sylvia Beach*)여사로부터 40회 생일선물로 두 권의 텍스트를 받아 켄 조이스는 곧 불만을 터뜨렸다. “이 많은 식자공의 에러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이런 실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건가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Letters* 1, 176). 비치의 초판에 오식이 많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제작 기간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자기 생일날에 맞추어 출판이 되어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에 영어에 서툰 프랑스의 타자수와 식자공들은 작업을 서두르

지 않을 수 없었다. 교정을 보는 사이에 조이스는 교정 보다는 교정쇄의 가장자리에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에 더 열성이었다. 이 때 붙여난 분량이 당초 원고 량의 30퍼센트가 넘었다. 이 때는 공교롭게도 시력까지 나빠(연속적인 눈수술을 받고 있을 때였다) 자세하게 교정을 보기도 어려웠지만 인쇄소에서 교정쇄가 넘어오면 먼젓 것을 보관하지 않기 일쑤여서 기억을 더듬어 대충 해 버리곤 하였다. 이렇고도 어찌 초판에 에러가 없기를 바라겠는가! 조이스는 “이 많은 에러”를 영어를 잘 모르는 프랑스의 식자공 탓으로 돌렸지만 정작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조이스 자신이었다.

다음 판부터는 조이스가 직접 교정을 보기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오표를 만들어 새 판이 나올 때마다 권말에 달았다. 1932년 오딧세이 출판사를 통하여 “수정판”(revised text)을 낼 때에는 친구 길버트(Stuart Gilbert)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조이스의 교정은 1934년 미국 최초의 랜덤 하우스 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말이 교정이지 그의 교정은 결코 철저한 것은 아니었다. 안질의 악화도 악화거니와 『율리시즈』 집필을 끝낸 직후 착수한 (1923년 3월부터) 『진행중인 작품』(*Work in Progress*) (뒤에 『피네건의 밤샘』이 됨) 쓰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돌턴(Jack P. Dalto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적절하게 들리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이스는 언제나 서툰 교정원이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항상 서툰 교정원들이었다. 그들은 창조자이지, 사무원이 아니니까” (113-14).

당초의 의욕과는 달리 조이스의 교정은 호지부지 끝났지만 그의 사후, 출판사에서 도 자체적으로 에러 없는 텍스트를 만들려고 저마다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61년의 랜덤 하우스판만 하더라도 교정 전문가를 동원하여 “꼼꼼하게 개정한”(scrupulously corrected) 텍스트라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주목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를 “꼼꼼하게 검토한”(scrupulously examined) 원문비평가 돌턴이 “나는 이 판에서 4,000여 개의 새로운 잘못을 발견하였다”면서 “종전 판 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결코 양호한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102)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투성이인 초판을 (작업) 대본으로 쓰는 이상 부패(corruptions)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운 일이다. 작업과정에서 새로 생기기 마련인 잘못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종전의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텍스트의 잘못을 바로 잡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독일의 원문 비평가이자 뮌헨 대학의 조이스 학자인 가블러(Hans Walter Gabeler)

교수가 1970년대 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이스가 썼음직한” “새로운 독창적인 텍스트”(a new original text of *Ulysses*) (viii)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가 뜻하는 목적은 『율리시즈』의 “비판판”(critical edition)을 만드는 일이었다. 『율리시즈』의 집필과 출판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현존 자료, 즉 자필 초고, 정서본, 타자고, 초판의 교정쇄 등을 죄다 컴퓨터에 입력하여 거기에 나타난 에러를 “비판적으로” 바로 잡아 조이스가 썼음직한 텍스트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다(vii). 이 의욕적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장받은 가블러 교수는 국제적인 학술 고문단(*Academic Advisory Committee: Richard Ellmann: Philip Gaskell, Clive Hart assisted by A. Walton Litz and Michael Groden*)을 구성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권위자인 두 동료 교수의 도움을 얻어(*Prepar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작업에 착수했다.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는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쓴 해수와 일치한다) 가블러 교수팀은 뉴욕의 갈랜드 출판사를 통하여 1984년 봄의 날에 『율리시즈: 비판과 개요판』(*Ulysses: A Critical and Synoptic Edition*)이란 이름으로 그 결과를 내놓았다. 3권(1999쪽)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이 텍스트에서 “개요판”(Synoptic Edition)이라 함은 현존 자료의 추적, 분석을 통하여 에러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의 “개요”를 실은 것이고, “비판판”(Critical Edition)이라 함은 “비판적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확정된 완성판(“the new reading text”)을 실은 것이다. 전자는 이 텍스트의 원편에 실려 있고 후자는 그 오른 편에 실려 있다.

가블러는 『율리시즈』의 원문 개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이 “비판판”에서 5,000여개의 초판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하였다(vii). 바로 잡은 에러의 대부분은 철자법과 구두점이지만 종전 판에 누락된 낱말과 구와 문장의 발견도 적지 않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스킬라와 카립디스」장의 스티븐 데달러스의 의식의 흐름 부분에서 빠져 있던 “사랑”(“love”)의 구절의 복원을 들었다. 석 줄이나 되는 이 “사랑”의 부분의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작품 전체에서 세 주인공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viii)고 자랑하였다. 그는 62년 전의 초판에 대한 조이스의 불만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팀이 완성한 “이 새로운 독창적인 『율리시즈』 텍스트가 1922년 이래 출판된 모든 종전 판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viii).

가블러의 『율리시즈: 비판과 개요판』(1984) (또는 갈랜드 판)이 나온 2년 뒤에

종전에 『율리시즈』 판권을 갖고 있던 세 출판사에서 일체히 이 판의 보급판을 내놓았다. 2년간 출판을 보류한다는 갈랜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종전의 판권 소유사인 랜덤 하우스, 보들리 헤드, 펭귄 북스, 이 세 출판사에서 갈랜드 판이 나온 지 만 2년이 지나자 이 판의 “개요판” 부분은 떼어내고 “비판판”만으로 『율리시즈: 개정판』(*Ulysses: The Corrected Text*) (1986)이라는 타이틀로 동시에 출간하게 된 것이다. 가블러 판은 3권으로 된 장서판이었으나 이들 『개정판』은 단권으로 된 보급용 엮가판이다. 우리가 근자에 많이 이용하는 텍스트가 바로 이들 세 출판사에서 나온 보급용 『개정판』이다. 이들 “개정판”에는 똑 같은 내용의 엘만 교수의 「서문」이 다 같이 실려 있다. 엘만의 「서문」이 왜 책머리를 장식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제쳐 두고라도, 갈랜드 판 제작 당시 그는 가블러팀의 학술 고문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율리시즈』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말이 무엇이나”(U 3. 435)라는 스티븐의 물음에 줄곧 “사랑”일 것이라고 추측해 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엘만의 「서문」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서문이란 저자의 공적을 칭찬하거나 책의 특징을 초들어 매상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엘만 교수의 그것도 이런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엘만은 이 「서문」에서 가블러 교수는 “이상적인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책임자라고 추켜 세우면서¹⁾ 그의 성과에 대한 찬양도 또한 빠뜨리지 않는다. “『율리시즈』의 찬양자들은 이 감탄할 만한 신판을 소유하고 싶을 것이다... 『율리시즈』는 훌륭한 손질을 받아 광택이 자르르하도록 잘 다듬어졌고, 다소 불완전했던 종전의 약간의 잘못이 원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x).

엘만은 가블러가 “개선한” 사례의 논의에 들어간다. 바로잡은 대소 사례를 예시한 다음, 9장에서 복원된 “사랑”의 구절을 집중 거론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발견된 “사랑”의 구절은 원래 로젠바흐 원고(Rosenbach Manuscripts)²⁾에는 있었으

1) 엘만은 이렇게 적었다. “한스 발터 가블러는 뮌헨대학의 교수이자 버지니아대학에서 엄격한 원문-편집 교육을 받은 원문학자로 『율리시즈』의 신판을 내기로 착안하였다... 가블러의 목표는 조이스가 이상적인 여건에서 썼을지언 이상적인 텍스트를 만드는 일이다. 가블러의 신판은 현존 원고의 증거에 철저하게 의존한다.” (x).

2) 이는 필라델피아의 로젠바흐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부분적인 육필 원고를 말한다. 더러는 『율리시즈』의 정서본(fair copy)이기도 하고 더러는 최종 작업 초안(final working draft)이기도 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로 3권으로 출판되기

나 타자고나 교정쇄에는 없는 부분으로, 조이스가 교정을 볼 때 빠진 줄 알고도 일부러 그냥 있었는지 빠진 줄을 몰라 그냥 지나쳤는지의 여부는 아직도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블러는 타이피스트의 불찰("eyeskip")로 누락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 책에서 가장 긴 탈루 부분을 복원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원고에 있는 대로 복원한 부분을 제시한다.

Do you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Love, yes. Word known to all men.
Amor vero alicui bonum vult unde et ea quae concupiscimus... (U 9.
429-31)

엘만에 의하면, 위의 라틴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Summa contra gentiles*에 나오는 두 구절을 묶은 것으로 앞의 6 낱말은 "사랑은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의 뜻이고, 뒤의 5 낱말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탐한다"의 뜻이다. 전자가 이타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후자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한다. 스티븐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토록 알고자 하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말"은 "사랑"("Love, yes")임을 마침내 발견한다. 그는 아퀴나스가 두 사랑의 차이를 논하는 대목에서 쓴 두 구절을 임의로 결합하여 그가 발견한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말은 무엇인가?"(U 3. 435)라는 자문은 스티븐의 머리를 온종일 짓누르는 심각한 문제였다. 심야의 사창가 장면에서도 환상 속에 나타난 어머니의 유령에게 애절하게 묻기도 한다. "아시거든,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말이 무엇인가를"(U 15. 4192-93). 그러나 그는 대답을 듣지 못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간에 추측이 구구했다. 작품의 해석상 열쇠같은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엘만은 "가블러교수가 도서관 장면에서 누락된 사랑의 구절을 복원하여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xii)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 지적은 이 구절의 복원을 가장 큰 개가로 자랑하는 가블러의 주장에 대한 맞장구치기가 아닐 수 없다.

엘만은 이 부분의 복원이 "해석의 목적상, 가블러 텍스트의 수많은 대소 수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xii)이라면서 사랑이 『율리시즈』의 핵심 주제라는

도 하였다. *'Ulysses': A Facsimile of the Manuscript*. 3 vols. Ed. Clive Driver. London: Faber & Faber, 1975.

평소의 그의 지론을 편다. 「서문」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사랑론으로 채워져 있다. “『율리시즈』의 조이스의 주제는 단순하였다”(ix)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서문」은 “『율리시즈』는 여태껏 나온 작품 중에서 가장 결말이 뚜렷한 작품 중의 하나”(“one of the most concluded books ever written.”)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물리 불륨이 (작품의 끝에서) 스티븐과 불륨이 사랑에 관하여 말한 바 있는 그 결말성(finality)의 리듬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xiv).

추천사의 전형같은 엘만 교수의 이 「서문」은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가 다른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서문」내용과 상반되는 충격적인 견해를 피력한 데 있다. 「서문」이 먼저인지(발간은 1986년), 학회의 발표가 먼저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일단 그다지 대수로운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서문」의 내용을 뒤엎는 발언을 스스로 한 데 있다. 문제의 불씨가 된 현장을 찾기로 한다.

보스턴 대학의 존 키드(John Kidd) 교수가 갈랜드판에서 4,000여 개의 새로운 에러를 발견하였다면서 가블러의 공격에 나서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1985년 5월에 모나코에서 갈랜드판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학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1년이면 가블러판에 대한 학자들의 검토가 대충 끝났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에는 20여명의 원문비평 권위자이자 저명한 학자들이 초청을 받아 발표에 나섰다. 조이스 학술행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찬반 양론으로 대립되기 마련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특히 원로 학자들의 비판이 드셴다. 이들의 공격은 가블러의 성토장을 방불케 하였다. 헤이만(David Hayman)같은 교수는 가블러의 “비판판”은 그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전에 없던 에러가 더 많이 생겼다면서 가블러가 아닌 다른 학자가 “보다 나은” 새 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이기까지 하였다. 가블러 팀의 학술 고문이었으나 편집원리상의 가블러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 가블러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중에 고문단에서 탈퇴한 하트(Clive Hart) 교수³⁾도 헤이만 교수의 비판에 가세하였다. 뜻밖에도 엘만 교수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3) 하트교수는 고문단에서 같이 탈퇴한 가스켈(Philip Gaskell)교수와 뒤에 공저한 *Ulysses: A Review of Three Texts* (The Princess Grace Irish Library 4) (Gerrards Cross, Bucks: Colin Smythe, 1989)에서 가블러판에서 483개의 잘못(alterations)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xvi)

다. 그는 하트와 가스켈 두 교수와는 달리 가블러팀의 고문단에서 공식적으로 도중에 탈퇴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특히 가블러가 되살린 “사랑”의 구절은 빼어야 마땅하다고 공언하여 참석자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엘만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가블러교수가 그의 귀중한 신판을 발간하기 훨씬 이전에 「스킬라와 카립디스」장에서 누락 된 구절을 복원하였다고 나에게 알려 왔다. 그는 내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했고 물론 나도 그러했다. 왜냐하면 나는 「리피강변의 율리시즈」(*Ulysses on the Liffey*)에서 스티븐이 「키르케」장에서 그의 망모에게 일러 달라고 간청하나 듣지 못한 말이 사랑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작품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즐거운 확증(confirmation)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조이스가 과연 이 구절의 복원을 반가워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겼다. 조이스는 이를 미련 없이 삭제하기로 결심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가블러교수에게 충고했다. 그러나 나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rux,” 28-29).

출판 이전에 가블러 교수와 있었던 비화의 공개로 말문을 연 그는 “사랑” 구절의 복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티븐은 작품의 클라이맥스인 「키르케」장에서 환상 속에 나타난 망모에게 “어머니, 아시거든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말이 무엇인가를”(U 15. 4192-93)하고 애원하는데 9장에서 이미 알게 된 말이라면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극도로 말을 아끼는 조이스가 스티븐으로 하여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망모에게 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조이스 답지 않은 발상” (“Crux,” 33)이라면서 해답을 끝까지 덮어두어야 사랑의 중요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Crux,” 30)고 주장한다. “조이스의 특징은 까발리기에 있기보다는 억제하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rux,” 31).

엘만은 또 가블러가 “사랑”의 구절을 되살린 근거로 “타이피스트의 불찰(eyeskip)을 내세우는 것”을 반박한다. 모두에서 지적인 대로 타자고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조이스가 이를 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수의 실수려니 추측하고 이를 복원한 것은 조이스의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가블러 교수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Crux,” 34)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가블리판에서 “사랑” 귀절을 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엘만은 왜 「서문」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당장 고개를 든다. 빼는 것이 좋으리라는 그의 충고가 먹히지도 않았는데 왜 그는 학술 고문으로 머물러 있었으며, “사랑”의 구절은 논리적으로나 조이스문학의 특징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면서 왜 “이 부분의 복원이 가블리의 수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격찬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엘만 교수의 「서문」은 작품을 너무 단순하게 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블리의 “개정판”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애트릿지(Derek Attridge) 교수도 이 「서문」의 존재를 미스테리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엘만의 서문이 실리게 된 내력은, 즉 출판사들의 담합, 협상, 금전거래, 그리고 영향력과 명성을 고려한 모든 이면사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an untold story)로 남게 되었다”(91). 그가 지적인 내력의 세목은 짐작이 가기도하고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어쨌든 가블리의 『율리시즈』 “개정판”에 실린 엘만 교수의 「서문」은 그의 본 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모나코 학회에서 그가 “사랑” 구절의 복원을 둘러싼 가블리와 불화를 토로한 것을 보면 출판사측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에 없는 주례를 맡은 격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마음에 없는 주례사를 하고도 그는 내내 마음이 편했을까. 마음이 편치 못해 뒤에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서문」을 발표한 이듬해에 엘만 교수는 고인이 되었으니 그의 직접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서문」의 존재 여부는 이제 출판사의 손에 달린 것 같다. “개정판”을 내는 세 출판사에서는 랜덤 하우스의 모던 라이브러리 판 『율리시즈』에 실리는 울지 판사(Judge John M. Woolsey)의 판결문처럼 엘만 교수의 「서문」을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로 보고 계속 실릴 것인지, 엘만의 진의를 받들어 언젠가는 제거할 것인지 두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충북대)

인용 문헌

- Attridge, Derek. *Joyce Effects: On Language,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Dalton, Jack, P. "The Text of *Ulysses*." *New Light on Joyce from the Dublin Symposium*. Ed. Fritz Senn. Bloomington: Indiana UP, 1973; 99-119.
- Ellmann, Richard. "Preface" to James Joyce,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London: Bodley Head, 1986; ix-xiv. (이 글에서 텍스트의 인용은 이 판에 따름.)
- _____. "A Crux in the New Edition of *Ulysses*." *Assessing the 1984 'Ulysses.'* (The Princess Grace Irish Library 1). Eds. C. George Sandulescu and Clive Hart. Gerrards Cross, Bucks: Colin Smythe, 1986; 28-34.
- Gabler, Hans Walter. "Foreword." to James Joyce. *Ulysses: A Critical and Synoptic Edition*. 3 Volumes. Prepar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New York: Garland, 1984: vii-viii.
- Gaskell, Philip, and Clive Hart. *Ulysses: A Review of Three Texts* (The Princess Grace Irish Library 4). Gerrards Cross, Bucks: Colin Smythe, 1989.
- Joyce, James.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London: Faber, 1957.

Abstract

Richard Ellmann's "Preface" to Gabler's *"Ulysses: The Corrected Text"*(1986)

Sheon-Joo Chin

Ulysses: The Corrected Text, ambitiously edited by a group of international Joyce scholars led by Hans Walter Gabler,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ost authoritative edition since its publication in 1986. The book was prefaced by Richard Ellmann. Considering his weight in the Joyce scholarship and his function as advisor in this new textual project, his writing of the preface seems very appropriate for the occasion. Some of the behind-the-screen episodes, however, point to the possibility that Ellmann might have done the job without the enthusiasm expected of him. One such oblique counter-evidence is his objection to include the hitherto excluded "love" motif in the "Scylla and Charybdis," which was not accepted by the editors.

- 주제어: Gabler, Ellmann, *Ulysses*, revised text, scrupulously corrected, corruptions, Rosenbach Manuscripts, Scylla and Charybdis (가블러, 엘만, 율리시즈, 교정 텍스트, 면밀한 교정, 오류, 로젠박 원고, 스킬라와 카립디스)